



# 광남일보



주간 제 8066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음력 2월 29일)

## 민형배 “대동정신으로 성장의 중심 도시 만들겠다”

### 민주 통합시장 후보 첫 행보로 5·18묘역 참배 정책 결정·예산 집행 과정 시민 참여 확대 약속 광주 첨단산업·전남 자원 결합 ‘균형성장’ 제시

#### 6·3지방선거 D-48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후보가 ‘오월정신·대동세상’을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가치로 내걸었다. ▶관련기사 8·19면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대도약을 위한 3대 비전으로 내놓으며 6·3 지방선거 행보에 본격 나섰다.

민형배 후보는 15일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뒤 첫 일정으로 국립 5·18민주묘역을 찾아 오월 영령과 운상원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월 정신과 대동 정신을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며 “5월 영령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동세상은 ‘모두가 함께 사는 이상 사회’로, 치열했던 당내 경선 갈등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전남광주통합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운상원 열사 묘를 참배한 민 후보는 “운상원 열사의 죽음이 오늘의 광주를 만들었

다”며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살린다는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새 시대를 향한 투쟁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월 정신을 오늘의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내겠다”며 “전남광주를 정의의 연대, 그리고 성장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민 후보는 방명록에도 ‘5·18 대동세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완성하겠다’는 글귀를 작성했다. 이후 민 후보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순천시의회를 각각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의 대도약을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그는 “320만 전남광주 특별시장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민 후보는 전남광주 통합의 의미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판을 여는 기회’라 규정하며 통합특별시를 청년이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정치적 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환, 경제적 대도약, 사회·문화적 대변영이

란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 분야에서 공약 1호인 ‘시민주권 정부’ 구축을 약속했다.

민 후보는 “행정은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중요 정책을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예산과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속하고 유능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전남과 광주의 강점을 결합한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광주의 첨단산업 역량과 전남의 농수산, 재생에너지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겠다”며 “농촌은 스마트 화하고 도시는 혁신을 가속화해 청년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해 대한

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문화 분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전남광주가 가진 위대한 정신과 문화적 자산을 시민의 일상으로 확장하겠다”며 “충족한 복지체계를 통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삶의 질 1등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민형배 후보는 “시민이 맡겨준 책무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겠다”며 “더 낮게 듣고 더 겸손하게 살피며 더 치열하게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정치·성장·희망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민주당 전남 경선 ‘줄줄이 중단’...파행 확산

### 장성·화순 대리투표, 여수는 권리당원 명부 유출 논란 여수 전략선거구 지정...시민 참여 80%로 경선률 변경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경선이 잇따라 멈춰서며 파행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장성·화순에서는 대리투표 의혹이, 여수에서는 권리당원 명부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선 방식까지 바뀌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남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장성군수 결선투표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전

행 중이던 경선 일정은 전면 연기됐으며, 재개 여부는 중앙당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예정이다.

장성군에서는 한 경로당에서 대리투표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휴대전화 8대가 A4용지 위에 정리된 채 발견됐고, 일부 용지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도 윤리감찰단을 투입해

긴급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수 경선도 같은 이유로 멈췄다. 고령 주민 휴대전화를 활용한 대리투표 의심 제보가 선관위와 경찰에 접수되면서 도당이 경선 절차를 중단했다. 두 지역 모두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 방식의 결선이 예정돼 있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장성군수 결선은 중앙당 조사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화순군수 경선 역시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재개 또는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수시장 후보 선출 절차는 경선 중단

을 넘어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당은 여수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기존 경선 체계를 전략공천 심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초 김영규·백인숙·서영하·정기명 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50%와 시민 50%를 반영하는 본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여수를 지역위원회에서 권리당원 141명의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정이 전면 연기됐다.

중앙당은 후보군은 4인 체제를 유지하되, 파란 투표지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르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선 배제도 크게 바뀌었다.

▶2면서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 민주주의·생애책임·인재양성·평생교육 4대 비전 제시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장교육감 예비후보(사단)가 15일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 완수를 내세우며 통합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YMCA와 전남도교육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교육특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학생 생애 전반을 책임지는 교육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100년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뤄진 전남·광주 재통합에 대해 “단순한 행정 결함을 넘어 지역 발전



을 서울에 견줄 교육 중심지로 성장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행정 통합 준비 과정에 참여

여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확대된 교육자치 권한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모델과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민주주의의 교육특별 시△학생생애 책임 교육특별 시△인재양성 교육특별 시△평생문화 교육특별 시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김인수 기자 joinsu@

##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에 여전히 찬바람만 불립니다.

텅 빈 냉장고, 다 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특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ARS 후원문의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